

임실N치즈축제 성공개최 박차

임실N치즈축제 제전위원회 정기총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이 올해로 10주년을 맞는 임실N치즈축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임실N치즈축제 제전위원회(이하 제전위)는 정기총회 및 2024년 사업 운영 계획 보고회를 갖는 등 2024 임실N치즈축제의 성공개최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제전위는 21일 임실치즈테마파크 지정환 홀에서 올해 축제 준비를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지난해 축제에 대한 결산과 함께 올해 축제 예산안과 사업계

획안 등을 심의 의결하고, 향후 축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오는 10월 한국관광의 별인 임실치즈테마파크와 임실치즈마을, 임실을 일원에서 열릴 천만송이 국화꽃과 함께하는 임실N치즈축제는 10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개최될 예정이다.

치즈축제는 지난 1967년 작고 적막한 시골 마을인 임실 땅으로 선교활동을 하러 오신 故 지정환 신부가 산양 두마리를 시작으로, 수많은 시행착오와 고생 끝에 마을 청년들과 함께 만들어

낸 대한민국 최초 치즈를 테마로 임실 치즈의 가치와 지정환 신부님의 정신을 널리 알리고 임실군민과 방문객들이 함께 즐기는 축제이다.

지난 2015년 처음 개최할 당시 10만여 명이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매년 40만명 안팎의 관광객이 찾는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축제기간 56만명의 방문객이 찾아왔고, 16억원 이상의 매출액을 올리는 대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치즈축제를 통해 '임실군'과 '임실N치즈'의 위상을 한층 높여 대한민국 대표, 문화관광축제임을 증명했다는 평가다. 이 같은 성과에 힘입어 임실치즈테마파크는 국내 관광 분야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2023년 한국관광의 별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군은 올해 치즈축제에서도 차별화된 프로그램과 매력적인 콘텐츠를 구성하여 색다른 볼거리와 체험거리는 물론 방문객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각종 편의 제공에 대한 준비를 꼼꼼하게 챙겨나갈 방침이다.

심 민 군수는 "임실N치즈축제가 올해 10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그간의 쌓아온 경험과 열정으로 성공적인 축제 개최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치즈축제의 성공과 더불어 육정호 출렁다리, 봉어섬 생태공원, 성수산, 사선대 등 주요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 특화 지역으로서 천만관광 임실시대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N치즈축제제전위는 21일 임실치즈테마파크 지정환 홀에서 올해 축제 준비를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순창군수, 국가예산 확보 총력

국회 방문 주요 현안

국가예산 반영 요청

최영일 순창군수가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 국가예산확보 노력을 올해도 이어갔다.

지난해 국회와 중앙부처 등을 오가며 국가예산확보에 전력을 기울였던 최 군수가 올해도 연초부터 국회를 방문해 국가예산확보 총력 대응에 나섰다. 순창군은 최영일 순창군수가 지난 20일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 여야 국회의원을 만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국가예산 확보를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최 군수는 민주당 이원택 의원, 국민의힘 호남동행 국회의원인 성일종 의원, 이용호 의원 등을 차례로 만났다. 최 군수가 이번 국회 방문에서



개년 현안사업은 순창 동계지구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사업으로 국비 300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동계지구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사업은 영농기 용수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습 가뭄지역인 동계면 동심리 등 8개 지역에 안정적인 농업용수원을 확보하기 위해 수자원이 풍부한 저수지를 추가로 보강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농경지는 208ha이나 매년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돼 선 순위에서 오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대상지에서 제외되고 있어 현재 이 지역 농민들의 영농생활 불편이 장기화되면서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군은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조체계를 구축하며 해당 사업의 국비 예산 반영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다시 한번 국회 차원에서 힘을 실어줄 것으로 재차 요청하는 차원에서 이번 국회 방문을 가졌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방문은 최 군수가 연초부터 중앙부처와 국회의와의 연계성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예산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 방문을 서둘러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영일 군수는 "순창 동계지구는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가 시급한 지역으로 하투빨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해 이번 방문에 나섰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올 첫 추경예산 편성

1조381억 규모... 안전·재난 분야160억원 증액 편성 등

남원시는 새해 첫 출발 시민들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1조381억원 규모의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여 21일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남원시의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381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9,918억원보다 463억원(4.7%) 늘어난 규모이다. 일반회계는 9,743억원으로 374억원(4.0%)이 늘었고, 특별회계는 638억원으로 89억원(16.3%)이 늘었다.

시는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이 삭감되는 등 올해도 이어지는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도 시민들의 삶에 직결되는 예산을 적극 편성하고자 200억원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여 재원을 마련했다. 산업 분야에 본예산 대비 182억원(44%) 증액하고, 안전·재난 분야에는 본예산 대비 160억원(17%)을 증액 편성하였다.

또한 교육·지역개발 분야에는 본예산 대비 123억원(20%)이 증액하고, 관광 분야에는 본예산 대비 88억원

(13%)이 증액되었으며, 농업 분야에는 본예산 대비 57억원(3%) 증액 편성했다.

이 밖에도 시민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한 △공중주택 지원사업 1억원,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개선하고 △소상공인 환경개선사업 2억원 △금융특례 지원 및 이차보전금 3억원, △남원사랑상품권 1,100억원 발행에 따른 10% 할인을 위해 32억원 △반대비 체육센터 리모델링사업 31억원 △파크골프장 주변 시설물 정비사업 2억원 △맨발걷기 조성 5억원을 편성했으며, 제1회 추경예산은 3월 5일부터 개최되는 제26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심의와 의결을 거쳐 3월 19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최경식 시장은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등이 60억원 감액되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산업·안전·농업·관광 분야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했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새농촌 육성기금 상반기 20억원 지원

3월 5일까지 용자금 신청

순창군이 농가소득 증대와 경영 안정화를 위해 용자금 지원에 나섰다.

군은 21일 경기 침체와 경영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소득사업 필요 자금을 지원해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 및 소득 창출에 큰 도움을 주고자, 지역 농민을 대상으로 새농촌 육성기금 용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용자금규모는 20억원으로 농업인은 5천만원, 농업법인은 1억원까지 지원하며, 상환은 3년 자율상환

이다. 지원 대상분야는 특용작물 재배 등 농업소득 사업과 하우스 설치, 개보수 등 생산기반 사업이며, 전일일로부터 5년 이내 귀농인에 한해서는 농지구입이 가능하다.

용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가는 오는 3월 5일까지 거주지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용자금은 읍·면장의 추천과 현지조사 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자대상자를 확정한다. NH농협은행 순창군 지부 농업신용보증보험에서 대출 심사를 통해 지원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2024년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개최

임실군이 지난 20일 군청 농민교육장에서 2024년 임실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개최했다.

임실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위원장 김생수)는 농업 관련 유관기관 및 농업인 단체의 전문위원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임실군 농업 발전을 위한 토의 자리를 가졌으며, 올해 추진해 나갈 농촌지도사업 대상 농가를 선정했다. 군은 지난해 12월부터 군청 및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시범사업 신청 공고를 게재하고, 읍·면 이장회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함

으로써 많은 농업인들이 시범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해당 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 신청 마감 후에는 사업 관련 담당자들이 현지를 방문해 사업 여건 등을 검토하고 심의회에 상정했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식량작물, 과수, 채소, 축산, 신규 및 청년농업인 육성, 가공 분야 등 총 21억3,700만원이 투입되는 39개 시범사업에 대해 사업별 특성에 맞는 시범사업의 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이 추진 되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 농기센터, 곤충산업 인력양성 신규 교육생 모집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에서는 작년에 처음 개설해 많은 관심을 받았던 농생명바이오(곤충산업) 인력양성 교육의 신규 교육생을 모집한다.

올해 교육은 국내 식용 곤충 산업에 대한 이론과 곤충 농가 방문을 통해 곤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현장 방문을 통해 실제 곤충 사육기술을 습득함으로써 곤충 사육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며 총 40시간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대상은 남원시 거주자로, 오는 23일(금)까지 20명을 모집하며, 희망자는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거나 전화(063-620-8025)로도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원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봄을 알리는 복숭아 만개

남원 시설하우스의 복숭아 나무가 매서운 겨울 한파를 이겨내고 붉은 꽃망울을 터트리며 봄의 시작을 알렸다.

남원지역에서는 1월 상순에 가운을 시작해 노지재배보다 40여일 빠른 2월 말에 복숭아 만개, 이 시설재배 복숭아 대부분이 조생종이고, 수확은 5월 20일경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전국에서 복숭아를 가장 빠르게 출하하며 첫 복숭아를 찾는 마니아층에서 인기가 많다. 특히 많은 일조량과 비옥한 토양에서 재배되어 단백질과 아미노산, 유기산, 비타민, 식이섬유가 풍부하며, 20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베테랑 농가들의 재배기술을 통해 전국 제일의 품질을 자랑한다.

한편, 남원시는 명품 복숭아 생산을 위해 매년 지역 특화 품목 복숭아 시설사업, 과수농기계 사업, 시설현대화 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N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환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